

## 일본, BIM 데이터 기반 건축 심사제도 도입 및 디지털 인허가체계 구축 추진

| 해당국가 | 일본 | 기관(기업) | 국토교통성 | 동향분야 | 정책 | 국토교통<br>기술분류 | 건축 |
|------|----|--------|-------|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|
|------|----|--------|-------|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|

### □ 일본 국토교통성은 '26년 9월 BIM 데이터 기반 건축 확인·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'29년 봄 시행 예정

- 기존 도면 중심의 건축 심사에서 BIM(Building Information Modeling) 모델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는 심사방식으로 전환하여 건축 인허가 절차의 디지털화를 확대
  - '26년 4월 도입된 BIM 도면 심사와 구분하여 3차원 모델의 형상·속성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별도의 BIM 데이터 심사제도 마련
  - 심사자가 모델을 화면으로 확인하는 방식에 프로그램·AI 기반 자동판정 지원기술을 결합하여 심사의 효율성과 정확성 향상을 추진
- 심사 효율성 향상과 설계자의 데이터 작성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49개 심사항목을 우선순위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고 적용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
  - 1단계는 채광·환기, 배연설비·방화구획, 용적률·건폐율·높이 제한 등 건축물의 안전성과 법규 적합성에 관한 18개 항목을 우선 적용
  - 2단계는 구조·설비 분야 등을 포함한 나머지 31개 항목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건축 관련 법규 전반의 디지털 심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충

### □ BIM 데이터의 표준화와 공통 데이터 환경(CDE) 구축을 통해 설계·심사 간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건축 확인·검사제도 시행 기반을 구축

- 설계 프로그램의 종류와 관계없이 BIM 모델을 일관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 데이터 형식인 IFC의 작성기준과 구체적인 심사 지침을 마련
  - \* IFC(Industry Foundation Classes) : 제조회사가 달라도 BIM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국제 표준 형식
  - 건축물의 형상정보는 설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표현방식을 허용하되, 심사에 필요한 속성정보와 입력규칙은 공통기준으로 표준화하여 데이터의 일관성과 호환성을 확보
  - '27년 IFC 사양·BIM 모델 작성지침과 공통데이터환경 시험판을 공개하고, '28년 정식 시스템 구축과 시험운을 통해 심사 적용기반 마련
- '29년 봄 관련 법령 개정과 연계하여 BIM 데이터 기반 건축 확인·검사제도 시행을 추진하고, 건축 인허가 업무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
  - 설계자의 사전 법규 적합성 검토와 심사자의 BIM 모델 기반 확인을 지원하여 도면 간 정보의 정합성 검토 부담을 줄이고 심사 업무의 효율성과 심사기준의 일관성을 강화
  - 심사에 활용한 BIM 데이터를 3차원 도시모델과 연계하여 건축·도시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, 설계·시공·유지관리 등 건축물 전 생애주기에 걸쳐 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

※ 출처 : 국토교통성(2026.09.18), 建築BIMデータを用いた審査開始に向け基本構想をとりまとめました～「建築確認・検査におけるBIMデータ審査の導入に関する基本構想」を策定～